

앙토넝 아르토 혹은 언어의 수형자*

박 형 섭
(부산대학교)

❖ 국문초록

앙토넝 아르토의 삶은 잔혹한 실존의 드라마이다. 그는 고통이 투사된 정신적 삶을 살았다. 이 논문은 언어의 수형자로서 아르토의 글쓰기에 나타난 사유의 궤적을 살펴본 것이다. 아르토는 평생 말과 사물, 존재와 사유의 관계 사이에서 변민한 시인이다. 그는 존재의 신비를 일상의 언어로 옮길 때마다 정신적 고뇌에 사로잡혔다. 그의 시적 사유는 주체성의 상실에 따른 해체의 여정으로 향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언어로 포착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아르토는 젊은 시절 정신병을 앓았다. 우리는 그 병을 시적 창작의 어려움과 결부시켜 살폈다. 여기서는 아르토와 리비에르가 주고받은 편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시인은 “영혼의 중심의 붕괴, 일종의 근본적이고 달아나는 사유의 침식”을 언급하며 언어적 표현의 무능력을 토로한다. 그 이후 아르토의 불안한 정신적 징후는 지속된다. 그는 정신착란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도 의식만큼은 잃지 않았다. 그것은 아르토의 글쓰기에 그대로 나타난다. 또 그의 종교적 성향은 불안정한 정신을 반영한다. 멕시코 타라후마라 지방 여행 중엔 원시신앙인 페요틀의 의식(儀式)에 집착하고 주술에 경도되기도 했다. 그의 비기독교적 신관은 신비주의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르토는 마지막 순간까지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르토의 정신착란은 엄밀한 의미에서 광기가 아니다. 비록 광기라고 해도 그것은 은유적이다. 그것은 아르토가 자신의 한계를 거부하는 데서 나오며, 육체가 절대적

* 이 논문은 2016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에 의해 연구되었음.

감각과의 동일시 속에서 자신을 한데 모으려는 열망에서 비롯한다. 그의 지적 능력은 오히려 극도로 고양된 상태에서 더욱 잘 드러났다. 아르토의 광기는 심오한 사색가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정신착란을 겪은 시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시인들보다 더욱 시적이다. 아르토의 정상을 벗어난 감정은 우리 자신의 한계, 무력함, 체념 등을 측정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그의 절규는 비분절의 고통이지만, 다른 병자의 그것과 성격이 다르다. 왜 우리가 아르토의 작품에 관심을 갖고 천착하는가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주제어 : 언어, 양토냉 아르토, 정신병, 글쓰기, 존재, 시학

I. 들어가기

시인 아르토의 삶은 잔혹한 실존의 드라마이다. 그는 고통이 투사된 정신적 삶을 살았다. 그는 어려서 뇌막염을 앓았고 고교를 졸업할 무렵 이미 신경증으로 요양원을 드나들었다. 평생 그를 따라다닌 불안정한 정신은 여기서 비롯한다. 아르토의 최후의 시인은 직장암이지만, 정신적 죽음은 태어나면서 선고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르토는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아르토의 말이다. 탄생과 죽음을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그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인식했다. 우리가 아르토를 원초적 순교자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아르토는 평생 말과 사물, 존재와 사유의 관계 사이에서 번민했다. 그는 시인으로서 존재의 신비를 일상의 언어로 옮길 때마다 “사유 불가능성”이라는 문제에 봉착했던 것이다. 그의 시적 사유는 주체성의 상실에 따른 해체의 여정으로 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언어로 포착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글들을 남겼으니 말이다. 언어와의 투쟁, 시인의 글쓰기의 무능력은 절망감을 낳는다. 그가 언어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것은 인간사회로부터 격리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이 아르토가 특이한 존재로 살아가는 연유다. 그는 언제나 어떤 초월적 관계 속에 놓여있다. 그는 자신을 “이미 거기 있음”의 상존성 혹은 영원성에 위치시킨다. 존재하기 이전의 존재란 무엇인가. 신의 판단에 따른 재현 불가능한 앞섬은 그의 모든 의지보다 앞에, 즉 선택이 무용하고 무효인 자리에 스스로를

올려놓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유전적인 불치의 병, 치욕스럽고 괴로운 질병을 앓고 있다면 어떤 심정일까? 두려움과 고통의 날들을 어떻게 견디고,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부모, 신, 우주를 저주할 것인가? 병은 치유되지 않고 구원의 길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최후의 선택은 무엇인가? 죽음, 자살할 것인가?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가, 그것은 진정한 절망의 끝이 아니다. 이 절대적 고통 앞에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다. 아르토는 세상에 대한 절규와 반항, 혹은 함구와 묵상으로 언어 저편 섬망의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방랑의 오디세우스가 되어 정신적 세계를 배회했던 것이다. 거기에 시인으로서 시학의 잔혹한 파괴와 해체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자궁 속, 기관 없는 육체로 회귀하는 몽상으로 귀결된다. 그의 의식은 세상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며 더 이상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미지와 신비의 영역으로 떠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앙토냉 아르토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 관해 말한다, 마치 내가 그것을 말할 줄 아는 것처럼 (...) 당신은 결코 새로운 육체로서의 나를 잊지 못할 것이다.”¹⁾ 아르토가 반복하듯이 그의 시어는 한 존재가 세상에 던지는 고통이다. 이 글의 목표는 시인 아르토를 언어의 수형자(受刑者)로 규정하고, 그의 언어에 나타난 시적 사유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있다.

II. “정신적 존재existence spirituelle”의 병

아르토는 열네 살 때 문예지를 창간해 루이 데 자티드Louis des Attides라는 필명으로 최초의 시들을 발표했다. 오늘날 그의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연극이나 영화, 데생이 아니라 시작(詩作)에 몰두했던 것이다. 주로 보들레르와 포우 등에 영향을 받은 습작들이다. 이후 『드맹Demain』, 『악시옹 Action』, 『메르퀴르 드 프랑스Mercur de France』 등에 시를 발표했다.

1) A. Artaud, *Le Théâtre de la cruauté, Oeuvres Complètes XIII*, Gallimard, 1994, p.118.

1923년 5월에는 8편의 시 모음집 『트릭-트락 뒤 시엘*Tric-trac du ciel*』²⁾을 출간했다. 아르토는 언어의 표현에 집착했다. 이 시기 아르토에게 특기할만한 일이 발생한다. 그가 『누벨 르뷔 프랑세즈*La Nouvelle revue française*』의 편집장 자크 리비에르를 만난 것이다. 두 사람은 서신왕래를 시작한다. 편지의 교환은 1923년 5월 1일부터 1924년 6월 8일까지 총 11회로 아르토가 여섯 번, 리비에르가 다섯 번 썼다. 첫 편지는 아르토가 잡지에 투고한 시들에 대해 리비에르가 게재불가 의사를 전하는 짧은 내용이다. 리비에르는 편집장으로서 시를 싣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시인과 만나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아르토는 한 달 후 편집장에게 답장을 보냈다. 그는 시의 창조와 글쓰기를 자신의 정신병과 관련지어 언급했다. “나의 시들의 수리(受理)가능성 문제는 나처럼 선생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내가 하는 말은 시들의 수리가 능성, 즉 시들의 문학적 존속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끔찍한 정신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의 사유가 모든 단계에서 나를 떠나버립니다.”³⁾ 아르토가 편지에서 거론한 “정신의 병”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일종의 마비 증상이다. 글을 쓰는 순간의 마비인 것이다. 내면의 언어가 종이 위에서 단어의 형태를 찾아갈 때 발생한다. 이렇듯 아르토의 병적 징후는 글쓰기에서 언어문제의 첫 단계로 나타난다. 영감이 떠올랐을 때, 그 순간의 느낌을 단어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단어를 포착하려는 순간 그것이 사라지고 만다. 달아나는 것인지, 누가 훔쳐가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르토는 그 현상이 절대적인 악과 암묵적 공조에 의한 것이라 믿었다. 시인의 말이 다른 목소리에 영향이나 방해를 받는다면 언어는 스스로를 표현하기에 무력한 도구일 뿐이다. 그것은 타자에 종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내가 글을 쓸 때는 내가 쓰는 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가 느꼈지만 말할 수 없었던 것, 내가 포착하지 못한 것들은 관념들이거나 훔친 언어로서, 나는 그것을 파괴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입니다.”⁴⁾

2) 아르토의 첫 번째 시집. 칸베일러의 도움으로 뻬뻬에 다르쉬Papier d'Arches에서 112부 인쇄되었는데, 삽화로 엘리 라스코Elie Lascaux의 목판화가 들어있다.

3) A. Artaud, *Correspondance avec Jacques Rivière*, in *L'Ombilic des Limbes*, p.20.

4) A. Artaud, *Oeuvres Complètes XXI, Cahiers de Rodez*, Avril-25 mai 1946,

리비에르가 아르토의 시 게재를 거부한 이유는 분명했다. 그는 아르토의 시적 표현이 서투르고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는 시인에게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학적 논쟁의 편지들을 출판할 것을 역제안 했다. 그는 시와 아르토의 형이상학적 사유, 정신의 결합 등에 관한 내용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르토가 이미 문학적 자질을 갖췄다고 보았다. 아르토는 시의 거부에 자존심을 상하기는커녕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이 왜 글 쓰기에 집착하는지 개인적 견해를 표명했다. 자기의 관심은 문학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것임을 강조했다. 그로서는 특별한 증인의 시선 아래에서 스스로를 관찰 하는 것이 중요했다. 아르토는 리비에르에게 “모든 정신적 왜곡”이나 “심적 비정상”, “정신의 끔찍한 병”에 대해 말했다. 그는 이 질병에 대해 두 종류의 정신구조, 하나는 “심리·생리학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것”으로 부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의 표현에서 “영혼^{âme}”, “정신 esprit”, “두뇌^{cerveau}” 등은 모두 영혼의 의미를 띤다. “나는 정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나는 단지 두뇌의 변화와 그것의 고차원적인 활판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⁵⁾ 이러한 모호한 형태의 단어 사용은 자주 나타난다. “나는 단지 내 두뇌로 느끼는 것만을 요구합니다.” 아르토에게 물질이란 말은 직관과 맞닿아있다. 그것은 아르토가 세기의 새로운 병이라고 진단한 편지 속에서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 그는 동시대의 시인들인 트리스탕 짜라, 앙드레 브르통, 피에르 르베르디 등도 유사한 병을 앓았다고 말하면서 그들과의 차이를 강조한다. “그들의 영혼은 생리학적으로 감염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감염도 아닙니다.”⁶⁾ 반면에 자기는 “생리학적 결합, 영혼으로 불리기에 적합한 실체를 건드리는 결합, 대상 주위에 얽혀 있는 신경 에너지의 발현이라는 결합”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의 설명이 직관을 더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직관이 본질적으로 물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생리·심리학적 차원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의미작용에 의해 “우주적 영감”과 같은 근원적 삶을 의미한다.

p.91.

5) *Op.cit.*, *Correspondance avec Jacques Rivière*, p.28.

6) *Ibid.*, p.39.

아르토는 자신의 병이 특별한 개인의 차원에서 가치가 있다는 듯 설명한다. 그것의 증상은 어떻게 외적으로 나타나는가? 그의 설명은 정신적 경향과 자기초극의 구조를 잘 보여준다. “내 시들의 분산, 형태의 악습들, 사유의 지속적인 굴절 등은 연습부족이나 취급 방식에서 오는 제어의 부족, 지적 전개에 결함 등에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중심의 붕괴, 일종의 근본적이고 달아나는 사유의 침식, 나의 발전의 물질적 이득의 덧없는 비소유, 사유의 요소들의 비정상적 분리에 속한 문제들입니다. (...) 거기에 내 사유를 파괴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가 내가 존재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내가 발견한 말들을 내게서 빼앗아가는 어떤 은밀한 것, 나의 정신적 긴장을 감소시키는 어떤 은밀한 것, 그 실체 속에서 사고의 양에 따라서 파괴하는 어떤 은밀한 것, 우리가 그것으로 표현하는 주변부의 기억까지 내게서 제거하는 어떤 은밀한 것입니다.”⁷⁾ 이러한 현상은 글을 쓸 때, 말하려는 것과 말해진 것, 생각과 행동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그것은 오류의 글쓰기에 속한다. 이 오류는 단순히 언어로 사유하기의 어려움, 정확한 단어의 선택에 따른 고심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직접 관련이 있다. 작가의 글쓰기, 즉 정확성이 아니라 시적 창조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아르토가 말하는 결함이나 실패는 창조자의 내면 언어의 층위에 놓여있다. 시적 발견 속에서 마치 추상화처럼 생각과 표현이 뒤섞여서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리비에르가 아르토의 시를 보고 불완전한 것, 서투른 것이라고 평한 것이 바로 그렇다. 그 표현들은 시인이 그 자체로 느낀 것을 단어로 옮겨놓은 것일테니까 말이다. 아르토는 사고와 형태 사이의 거리를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의 자기분석은 시적 창조물의 변화 속에서 그것들을 분리시킬 수 없음을 말한다. “그 형태가 얼마나 불완전하든 간에, 내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을 때, 나는 모든 생각을 상실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 형태를 고정시킵니다. 이러한 표현방식, 당신이 나를 비난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 나쁜 표현, 그것은 내 생각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나옵니다.”⁸⁾ 아르토가 고통스럽다고 하는 병은 시를 쓸 때 시어의 선택의 단계에서 무력감에 빠지는

7) *Ibid.*, pp.25-26.

8) *Ibid.*, p.20.

데서 온다. 시인은 아르토라는 자아 속에서 가장 개인적인 존재다. 그 자아는 시를 창조하는 순간 시인과 함께 탄생된다. 시인의 무력감은 개인적인 약점이요 결함인 것이다. “단어들, 문장의 형태들, 사과의 내적방향, 정신의 단순한 반응, 나는 나의 정신적인 존재의 지속적인 추구 속에 있습니다.”⁹⁾ 이 정신적 존재는 불완전한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이 불완전한 작품은 적어도 존재를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르토와 같은 존재를 위태롭게 만든다. 리비에르에게 쓴 편지의 내용들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 아르토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 그 스스로 자신을 정신적 존재라고 불렀다. 그의 모든 글과 시들은 정신적 존재의 표현이다. 그의 작품은 막 사라져가는 정신의 물질적 결과인 것이다.

아르토가 편지에서 언급한 기이한 사유에서 나온 좌절의 이미지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전하지 못한 존재”도 존재로부터 나온다. 아르토는 리비에르와 문학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다. 또한 그는 편집장의 문학비평에도 관심이 없었다. 누구도 그의 시에 대해 문학적 견지에서 자기보다 더 잘 비평할 수 없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아르토의 병에 대한 생각이다. 리비에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병을 더 이상 사고 혹은 사고의 연속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양토냉 아르토라고 표현되는 한 개인의 본성 그 자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아르토의 작품이 『누벨 르브 프랑세즈』 1925년 12월 1일 호에 게재되었다. 자크 리비에르가 그 해 초 죽었기 때문에 아르토의 텍스트를 게재한 사람은 후임 편집장인 장 폴랑일 것이다. 이후 아르토에게 글 쓰기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설명하는 그의 편지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르토와 리비에르의 서신은 의심할 바 없이 자기 성체에 갇힌 한 시인의 예에 불과하다. 즉 아르토는 고향과 세계 사이의 가능한 변증법적 관계들, 자신의 내부에서 솟아 올라오는 고향의 의미에 관해 의문을 품었다.

아르토의 저작들 대부분은 리비에르와의 교신에서부터 로테즈Rodez에서 쓴 편지들에 이르기까지 서간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는 타인, 즉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 자기의 생각을 공식화하는 방식이 편지라고

9) *Ibid.*, p.20.

믿었다. 이렇게 시작한 아르토의 대화는 점차 시에서 문학으로, 형이상학적 사유로, 그리고 사적인 자신의 정신적 질환으로 확대된다. 우주를 창조한 조물주는 좋은 신인가, 나쁜 신인가? 아르토가 보기에 그 신은 나쁜 조물주 즉 악마에 속한다. 인간에게 악과 병을 주었기 때문이다. 아르토는 악과 병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 둘은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라는 인식이다. 아르토가 병자로 태어난 것은 형이상학적 명령에 따른 것이다. 병은 존재와 신 그 자체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그는 20년 후 이렇게 말했다. “병을 치유하는 것은 범죄이다. 삶의 존재를 억압하는 것이다. 인간은 원천적으로 병자이다.”¹⁰⁾ 이러한 아르토의 병적 징후는 글에 잘 나타나있다. 정신적 마비, 무력감, 건망증 등. 그것은 시인에게 심적 고뇌의 원천이 된다. 글쓰기는 그 고뇌의 재구성인 것이다. 마치 정신병자가 의사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 문학에 치유기능이 있다면 아르토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글쓰기를 통해 스스로 치유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III. 병자(病者)의 언어

아르토의 사유는 점점 격렬한 언어로 표현된다. 글쓰기의 영역도 다양한 장르로 확대된다. 하지만 그의 관점은 일관성을 유지한다. 즉 자기에게 정신 병을 준 서구문화에 대한 이의제기와 그것의 해체가 목표였다.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문화, 그것은 바로 언어의 힘에 지배되는 문화이다. 따라서 언어가 지닌 불필요한 힘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이나 논리적 언어는 시정(詩情)을 방해한다. 초현실주의 이념에 봉사하던 시절¹¹⁾ 발표한 『육체의 위치*Position de chair*』, 『명확한 언어의 성명*Manifeste en langage clair*』 등의 텍스트들과 교황, 달라이라마, 불교학파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그 증거다. 그는 달라이라마에게 “진정으로 정신 속에 응결되어 있는 정신, 인습

10) A. Artaud, *Oeuvres Complètes XXII*, Gallimard, 1994, p.59.

11) 아르토는 1924년 10월 초현실주의 그룹에 가입하여 『초현실주의 혁명』 2호에 초현실주의에 관한 주요 선언들(「교황에게 보내는 글」등)을, 『초현실주의 혁명』 3호에 「1925: 기독교시대의 종말」등을 실었다.

적이지 않은 정신을 만들어 달라.”¹²⁾고 외쳤다. 아르토는 거기서 동시대의 모든 제도들, 학문, 예술, 심리학, 언어 등을 해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머리가 있다. 그것은 내적 자유의 이름으로, 그리고 평화와 완벽함, 순수의 이름으로 무미건조한 이성애, 수세기 동안 진창 속에서 모방에 맡겨진 세계, 그대에게 침을 뱉는다. 그 세계는 단어들의 집을 지었고 규범들의 목록을 확립했다. 그 속에서는 우리의 뿌리를 뽑는 유일한 정신인 초현실적 정신이 더 이상 폭발하지 않을 것이다.”¹³⁾ 아르토의 이상은 기존의 사유체계를 벗어나 새로운 언어,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언어를 구축하는데 있다.

아르토의 초기 글에 나타난 불안한 정신적 징후는 계속 이어진다. 그러나 그는 정신착란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도 의식만큼은 잃지 않았다. 그의 정신적 혼돈은 엄밀한 의미에서 광기가 아니다. 그것은 지적 능력의 상실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그의 지적 능력은 오히려 극도로 고양된 상태에서 더 잘 드러났다. 아르토의 광기는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조심스럽게 운반하던 폭발물을 일순간 폭발시키는 것과 같다. 그러한 내적 분출 덕에 우리 스스로 피해갔던 것, 잠재하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은 광기가 아니라 차라리 존재의 불가능과 본질적인 고독에서 기인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르토는 1945년 10월 로데즈에서 페르디에르 의사에게 말했다. “그것은 내게 절대이거나 허무이다. 나는 영혼도 천공(寒天)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세계에 대해 할 말이 있다.”¹⁴⁾ 절대 혹은 허무. 아르토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이 근본적 딜레마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할 뿐이다. 아르토의 언어망상, 즉 정신병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화법에 어긋난 말은 영감의 원천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아르토가 자신의 한계를 거부하는 데서 오며, 육체가 절대적 감각과 동일시하려는 욕망에서 오는 것이다.

아르토가 때로 자신의 광기에 대해 언급해도 그것은 분별 있는 사람으로서

12) *Adresse au Dalaï-Lama*, in *L'Ombilic des Limbes*, p.209.

13) *Ibid.*, p.215.

14) *Nouveaux écrits de Rodez*, Paris, Gallimard, 1977, p.107.

말하는 것이다. 그는 유럽인과 달리 멕시코 타라후마라인이 자기의 육체로 느끼고 지각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자기의 마음을 혼드는 감동, 자기가 지금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있다는 특이한 생각 등을 자기의 것이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육체 속에서 느끼며,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스스로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누군가 그가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¹⁵⁾ 그것은 자신의 꿈과 이상을 다른 현실로 간주하거나 왜곡하는 오류인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은 무의식으로부터 아직 깨어나지 않은 환각 상태의 지각을 진실의 이미지나 감동과 혼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르토가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주장을 펼칠 때마다, 사람들은 그가 헛소리 한다고 문제로 여긴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을까? 아마 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환각적 사고들을 옹호하려고 애썼다. 그것들은 자신의 병든 피에 의해 자연스럽게 운반된 것이 지 마약 등 다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덧붙여 말한다. “나 역시 잘못된 지각, 잘못된 감성을 체험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 그러나 나의 에너지와 명증성이 되돌아오는 것을 느낀다.”¹⁶⁾고 확신한다. 로테즈 병원에서 쓴 편지들에서 우리는 그가 매우 비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도 확신하듯 자신만의 입장을 펼치고 있음을 본다. 예를 들면 1945년 10월 6일의 편지는 이성적인 상태에서 시작되지만 곧바로 착란에 빠진다. 세 페이지쯤 지나자 아르토가 어둠 속에서 나타난다. “나는 살기 위해 시가 필요하다. 나는 그것을 내 자신의 주위에 두고 싶다. 그리고 시인인 나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시인은 자연 상태에서 시의 창작을 원하기 때문이다.”¹⁷⁾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나는 또한 수많은 파리 사람들, 그 주술사 집단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교대하며 예정된 시간에 대로에 줄지어 서서 내게 증오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¹⁸⁾ 아르토의 수많은 편지에서 수신자는 이러한 황설수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아르토는 말년으로 갈수록 눈에 띠게 주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썼다.

15) *Le Rite du Peyotl chez Les Tarahumaras*, p.17.

16) *Ibid.*, p.31.

17) A. Artaud, *Oeuvres Complètes XI, Lettres écrites de Rodez 1945-1946*, p.131.

18) *Ibid.*, p.144.

그는 앙리 파리조에게 설명했다. “나는 이 지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최후의 친구이자 독자들인 이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서 내가 결코 광인도 환자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감금은 무서운 비밀의 음모의 결과이며, 그 음모에는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바라문교, 게다가 티베트의 라마교 승려 등 비전을 전수 받은 인간들의 모든 교파가 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¹⁹⁾ 이러한 통고, 규탄, 간청의 글들은 수없이 많다. 아르토는 1947년 비외-콜롬비에 Vieux-Colombier 극장의 강연에서 다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다. “로테즈 병원의 페르디에르 박사 앞에서 결코 주술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발설하기라도 하면 즉각 헛소리한다고 야단했을 테니까요.” 이어서 아르토는 다음과 같은 비장한 대화를 전하며, 정신병자인 자신의 망상을 변호하고 증명하기 위해 매우 미묘한 변증법을 구사한다. “아르토씨, 또 헛소리가 시작되었군요. 어째서 헛소리입니까? 나는 있는 사실을 인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증거를 보여드리지요. 바로 그것이에요. 대단한 헛소리라고요. 알겠어요, 다시 전기충격요법으로 치료를 재개하고, 당신 친구인 장 폴랑에게도 그 사실을 편지로 알려야겠어요. 주술에 관해 이야기 한 사람이 어디 나쁜인가요? 위스망은 『저쪽 Là-bas』에서.... 위스망 역시 당신처럼 미치광이였지요. 내세(來世)를 믿는 인간은 모두 미치광이예요. 니체, 제라르 드 네르발을 보세요. 주술 따위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집착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당신은 여기에 감금당한 채 평생 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²⁰⁾

우리는 이 글에서 편집증 환자의 논리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르토의 논리는 너무 확고해서 마치 정신과의사가 정상인에게 말하듯이 그를 설득시키려고 한다. 마치 상대를 위협하듯이 논쟁에 임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환자들은 그들 고유의 정신착란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석하게 말한다. 각성과 무분별이 교대로 발생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누구도 아르토의 정신병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그가 말년에 쓴 텍스트들 중 상당수는 무의미한

19) *Les Tarahumaras*, p.69.

20) Claude Mauriac, *L' littérature contemporaine*, Paris, Albin Michel, 1969, pp.49-50.

의성어들의 축소판이다. 그는 결국 자신을 예수로 생각하기에 이른다. “2천 년 전 나는 골고다 언덕에 있었다. 언제나 아르토라는 이름으로. 또 신관이나 신을 몹시 싫어했다. 그 때문에 나는 시인으로서 또 천계(天啓)를 받은 자로서 여호와의 신관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퇴비 위에 내던져지게 된 것이다.”²¹⁾ 그는 비외-콜롱비에 극장의 강연에서 거듭 주장한다. “멕시코의 인디언들 중에는 자기에게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르토라는 점이 그 이유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전의 아르토, 그들이 부활하는 것을 본 아르토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 또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가 기억을 되찾고, 그 옛날의 인간성을 되찾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²²⁾ 아르토의 정신착란에는 분명 육체적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병이 카프카의 경우처럼 형이상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끊임없이 신을 찾았다. 어느 때는 신을 숭배하기 위해, 또 어느 때는 신을 모독하기 위해서 말이다. 신은 총체적 신이든 그렇지 않은 언제나 그곳에 존재한다. 아르토는 자신이 현실로부터 추방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스스로 초자연적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IV. 신앙과 주술

아르토는 어느 날 천주교로 개종했다. 그리고 얼마 후 천주교를 유해한 새로운 형태의 주술로 간주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욕설과 야유, 외설스런 말들이 동원되었다. “나는 개종한 상태에서 『페요틀의 제식 *Le Rite du Peyot l*』을 썼다. 그 무렵 이미 백 오십에서 이백 개에 이르는 성체의 빵들을 먹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나의 헛소리는 거기에서 나온다. 지금 그 무엇보다 미묘하고 편협한 십자가의 기호보다 더 음울하고 죽음처럼 불길하게 보이는 것이 없다.”²³⁾ 1945년 9월 아르토가 앙리 파리지

21) A. Artaud, *Oeuvres Complètes XVI, Supplément aux lettres de Rodez*, p.119.

22) *Ibid.*, p.122.

23) *Les Tarahumaras*, pp.42-43. cf. 페요틀은 선인장을 뜻하는 말로 그 식물의 윗부분에 흥분효과를 일으키는 메스칼린이라는 알카리성 약제가 함유되어 있다. 그것은 콜럼

에게 『타라후마라 지방 여행』에서 여행에 대한 「보유(補遺)」를 삭제해 달라고 부탁한 근거가 여기에 있다. “나는 예수에 귀의했다고 할 만큼 어리석었다. 예수는 언제나 내가 가장 싫어했으며, 그 귀의는 무서운 주술의 결과였고 로테즈에서 성체강령의 분위기에서 무서울 정도로 많은 성체의 빵을 먹고 나 자신이 아닌 상태 속에서 나를 가능한 한 오래, 아니 가능하다면 영원히 멈춰 있도록 하려고 했다.”²⁴⁾ 따라서 1945년 폰텐출판사에서 나온 초판에서 『타라후마라 지방 여행』의 「보유」는 삭제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행한 신앙의 부정이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아르토는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악마를 불러내는 것부터 시작했다. “나는 신이 마음에 열쇠를 건네주지 않는 한 내 앞에서 끊임없이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누구나 원하면 신을 볼 수 있다. 신을 본다는 것은 지상의 감각의 작은 영역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어느 날 나는 신에게서 멀어졌다. 이때만큼 내가 나 자신의 의식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느낀 적이 없었다. 나는 신이 없다면 의식도 존재도 없다는 것, 또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도, 신이 없다면 결코 자기 자신에 이를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이다.”²⁵⁾ 그는 타라후마라 인디언들의 시구리Ciguri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르토는 역시 앙리 파리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점을 명백히 밝힌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게 기도한다. 나의 모든 멕시코 여행은 바로 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라후마라인들이 숭배하고 있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때에 행하는 투투구리Tutuguri의 제식에서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신의 말씀인 예수이다.”²⁶⁾ 그는 다음과 같이 결말을 짓는다. “그리고 다음해, 아일랜드에서 내가 다시 발견한 것은 영원한 자비의 신이다.”²⁷⁾ 이 새로운 여행은

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 멕시코에서 약제로 쓰이거나 초자연적인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데 사용되었다.

24) *Ibid.*, p.67.

25) *Ibid.*, p.110.

26) *Ibid.*, p.151.

27) 아르토는 1937년 8월 14일 아일랜드 Cobh항에 도착 후, 17일 Galway, 23일 Kibrone 등을 거쳐 9월 8일 Dublin에 도착한다. 그는 숙식할 여력도 없이 무일푼으로 떠돌던 중 공공질서 위반으로 9월 23일 Mountjoy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30일 프랑스

아르토의 마지막 여행이 되었다. 그는 1943년 10월 장-루이 바로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이 나를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견디도록 해주었다. 신에 대한 생각. 나는 1937년 9월 더블린에서 그에게 귀의했다. 그리고 그의 종교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20년 간, 또 수년간 내가 쓴 무신론과 독신(流神)에 대해 신앙고백을 하고 성체를 배령한 것은 바로 그곳에서였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리비에르와 주고받은 편지들, 『연극과 그 이중』, 『존재의 새로운 계시들 *Les Nouvelles Révélations de l'Être*』²⁸⁾ 외에 내가 쓴 모든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절판할 생각이다.”²⁹⁾

아르토는 스무 살 무렵까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는 그의 정신병이 처음 발발할 즈음이다. 그는 1937년 이후 다시 신앙에 귀의한다. 그는 신을 모독한 글보다 기독교적 작품의 거부를 더 선호했다. 그는 작품을 형이상학적 체계든 주술이나 마술적 체계든 자신의 이념 혹은 기존의 정신착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아마 대부분의 거짓 신앙인들이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겉으로 판단하는 경우 영적 입장의 어느 한쪽을 선택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그것은 메스칼린에 관한 아르토의 태도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페요틀의 제식』에서 말한다. “신비주의자들도 형식에 따라 고도의 걱정과 찢어지는 고통에 도달하기에 앞서 그것과 유사한 상태나 이미지들을 통과해야만 한다.”³⁰⁾ 그리고 타라후마라 지방 여행의 「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페요틀이 개입하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그는 등 뒤에서 영혼을 취한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빛 속에 다시 놓는다. 그렇게 정신은 높은 곳에서부터 도래하는 것이다.”³¹⁾ 『페요틀의 제식』 이후 쓴 글은 이러한 해석을 조롱한다. “페요틀, 그는 이러한 악취를 발하는 정신적 동화에는 끼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비학은 언제나 매우 교묘하고 매우 세련된 하나의 위선의 교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고, 페요틀은 그 점에 대해 전적으로 항의하고 있

Le Havre 향으로 이송된다.

28) 1937년 7월 28일 인쇄된 32페이지짜리 소책자로 아르토는 실명이 아닌 “계시자 *Le Révélé*”라고 서명했다.

29) A. Artaud, *Oeuvres Complètes X, Lettres de Rodez*, p.244.

30) *Les Tarahumaras*, p.25.

31) *Ibid.*, p.113.

기 때문이다. 그것은 폐요틀에 의해 인간은 오직 단 한사람이 되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신에 대한 사랑도 없고 사회도 없고 자신의 해골의 음악을 절망적으로 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보유」에서 당시 자신의 입장이었던 기독교적 시각에서 고찰하든 그렇지 않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듯한 내용의 글을 썼다. “나는 (폐요틀 덕분에) 전혀 신에 접근하지 못했다. 그것은 신성에 이르는 육체의 실험적 시련의 수단을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³²⁾

아르토가 자신을 기독교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 그가 예수를 숭배하는지 모독하는지 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종교적 차원에서 아르토를 비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또 아르토가 초현실주의자들의 반신앙적 태도에 부여하는 듯한 의미만 있을 뿐이다. 그들은 아즈텍 인디언들의 처절한 신앙이나 타라후마라 인디언들의 제의에 경의를 표하는 것을 느낄 때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최면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이러한 느낌은 자신이 어떤 형태의 초자연적인 것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있음을 아는 관찰자들을 놀라게 한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이러한 거짓-무신론자들의 용이한 믿음이다. 신앙에 대한 무의식적 향수가 어떤 형이상학적인 부름에 보다 쉽게 헌신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거부하게 만든다. 그 형이상학적인 부름의 이국풍의 형식, 그 불확정적인 형식이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이다. 아르토는 시인으로서 어떤 강렬한 영감을 받고 이런저런 신앙고백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가 시구리에 갇혔던 것처럼 예수에게 간 것이다. 그가 그들을 혼동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거기에서 아르토가 기독교도들의 주장의 논거를 끌어왔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마찬가지로 아르토가 신성모독이나 다른 신앙을 받아들이기 위해 개종했을 것이란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도 아르토도 마술사 아르토도 아니다. 또한 새로운 신비를 전수 받기 위해 히말라야 산에 가려고 계획하고 있던 아르토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인이 언제나 형이상학에 직접 다가가려고 했다는 점일 것이다.

아르토는 자기 이념에 부합하는 종족을 찾으려 멕시코의 타라후마라로 향

32) cf. *Supplément au voyage au pays des Tarahumaras, Les Tarahumaras*, pp.109-122.

했다. 즉 그는 오로지 자신이 추구하는 것, 영원한 문화를 찾기 위함이다. 그러나 아르토는 자기의 기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점은 1926년 4월 2일자 편지에서 알 수 있다. “나는 가까운 시일 내에 멕시코의 오지로 떠날 작정입니다. 나는 불가능한 것을 찾으러 떠납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할 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는 페요틀의 제식에서 특정한 마술을 배웠다. 그는 이 불가능한 탐색 그 자체를 중요한 목적으로 간주한다. “나는 타라후마라 인디언들의 지방에 호기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유럽을 벗어나 있는 진실, 유럽 종족이 간직해 왔던 하나의 진실을 재발견하러 왔다.” 이 여행기의 「보유」에서 밝힌 본질, 그가 귀의한 시기의 기독교적 해석은 그 마지막 설명들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다. 아르토는 자신의 신을 추구하면서 타라후마라 인디언들을 재발견한 것이다. 아르토는 일상적 여행의 모험이나 일탈의 매력에 빠진 것이 아니다. 그가 되찾고자 한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이후 아르토의 삶은 점점 마술 쪽으로 기울다. 그는 곧 자신의 유년기 때의 기독교 신앙으로의 회귀를 분명히 드러낸다. 그가 아일랜드로 향한 것은 성 패트릭saint Patrick을 찾기 위함이다. 그것이 가톨릭의 마술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파생된 부두교 방식의 이교적 특성의 종교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이 여행의 모험은 지속되지 않았다. 그는 로데즈 병원에서 풀려나기 1년 전 이 종교를 거부하고 불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로데즈 병원은 지상에서 가장 가톨릭적인 성당의 그늘에서 현재 내가 존재하는 곳이었으며, 그것은 밤낮으로 나로 하여금 저주의 언어를 퍼붓게 만들었다.”³³⁾

이렇듯 아르토의 말년을 자신이 꾸며낸 신앙을 제외하고 모든 신앙으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는 젊은 시절 서구문화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했듯이 종교적 사상이나 강요된 신앙심, 그 실천적 방식을 파괴하고자 했다. 그는 서양과 동양의 종교를 모두 거부했다. 그리고 오로지 타라후마라 산악의 자연이나 인도네시아 발리 춤 댄서들 앞에서 그 자신을 찾으려 했다. 그렇다고 해서 서구문화에 대한 아르토의 고발 혹은 멕시코와 관련된 그의 작품들이 효력을 잃은 것은 아니다. 그의 멕시코 여행은 짧은 체류임에도 불구하고 심오한 영적 체험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33) A. Artaud, *Oeuvres Complètes IX, Lettres de Rodez*, oct. 1945, p.181.

아르토는 선악에 대해서도 많은 말을 남겼다. 그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했다. 그는 “악은 사물 속에 있으며,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 순수하다고 느낄 수 없다”고 썼다. 또한 “악과 신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상에서 신의 왕국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순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³⁴⁾ 이러한 글들은 로데즈의 노트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글을 그가 신앙을 포기한 후 마지막 몇 달 동안 쓴 시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것들은 『84』지에 게재되었다. 아르토는 거기서 음탕하고 추악한 세계, 심판도 도덕도 없는 불순한 세계를 고발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 자신의 진실한 이야기는 중요하다. 그것은 순수하고 선한 것을 원하는 개인적 이야기이지만 누구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순한 것,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 살인 이외의 것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당신에게 적대적으로 완전히 결속하여 악의 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강압적으로 당신을 악 속에 가두어두려고 할 때, 순수하게 남는다는 것은 매우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³⁵⁾ 특히 우리 시대의 경건하지 못한 광적인 신앙인들에 대해 비판은 신중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아르토는 주술을 믿었다. 그것도 문자 그대로의 방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대부분 아르토의 주술에 대한 믿음은 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에 더 이상 덧붙일 말은 없을 듯하다. 아르토가 “세상의 어떤 행복도 모르는 진정 절망한 사람이 당신에게 말한다.”³⁶⁾고 하듯이 그는 신의 심판을 끝내기 위해 욕설을 퍼붓고 다른 세계의 존재를 알리고자 했던 것이다.

V. 글쓰기를 통한 구원

아르토의 삶에서 글쓰기는 필연적이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인간성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아르토의 작품은 전부 구원에 관한 것이다. 영혼

34) A. Artaud, *Oeuvres Complètes XVII, Cahiers de Rodez*, pp.74-75.

35) A. Artaud, *Oeuvres Complètes XV, Cahiers de Rodez*, p.105.

36) A. Artaud, *Oeuvres Complètes VII*, p.121.

을 구원하는 수단으로서의 글쓰기가 최후의 목표이다. 그는 정신병원에 감금되었을 때도 계속 편지를 썼다. 특히 로데즈에서는 페르디에르의 예술치료법 덕분에 비교적 자유롭게 지냈다. 초현실주의 시인이기도 한 그 주치의 덕분에 아르토는 루이스 캐럴, 키츠, 포우의 시를 번역할 수 있었다. 그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 점은 1938년 자크 라캉이 “아르토는 더 이상 한 줄도 글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 것을 부정한 것이다. 아르토가 빌에브라르 Ville-Évrard 병원에 수용되어 있었을 때, 그곳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한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끝없이 글을 썼다. 하지만 그의 글들은 전혀 해독할 수 없었다. 어떤 내용도 끄집어 낼 수 없는 끔찍한 대혼란이 있었다. 특히 수용자들, 보조의사들은 아르토가 휘갈겨 쓴 글들을 분석하려고 애썼다.”³⁷⁾ 앙드레 루미외는 말한다. “아르토는 주치의, 병원장, 병원의 다른 관계자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편지를 썼다. 그는 단순히 글쓰기에 대한 욕망으로 글을 쓰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 수신자를 알 수 없는 글을 썼다. 그는 대체로 써놓은 종잇장을 구기고 구석에다 던져 버렸다. 어느 날 간호사는 환자들이 그 종이를 담배를 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구석에 앉아 자기들의 손가락 사이에서 아르토의 미간행 작품과 자필문서들이 불에 타는 것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의문이다.”³⁸⁾ 사람들은 아르토의 글쓰기가 작가로서 작품을 창조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현재의 고통을 주변에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아르토는 처음부터 자기의 편지들이 언젠가 출판되리라 믿었다. 그것은 이미 『자크 리비에르와의 서한』에서 증명한 바 있다. 다행히도 로데즈에서 아르토는 글쓰기를 통해 조금씩 평온을 되찾는 듯했다. 그가 병원에서 보낸 시간들은 몽상과 사유, 글쓰기에 대한 집착을 보여준다. 감금된 시인은 오로지 언어를 수단으로 자유를 누렸던 것이다. 그는 스스로 대화하든 타인과 대화하든 소통하길 원했다. 하지만 감금은 억압의 실존적 상황이었다. 그는 감금에서 풀려났을 때 자신을 세계와 격리시켰던 의사들과 사회에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성소의 중심 *L'Ombilic des*

37) A. Virmaux, *Artaud Vivant*, Nouvelles Éditions Oswald, 1980, p.67.

38) A. Roumieux, *Je travaille à l'asile d'aliénés*, éd. Champ Libre, 1974, p.97.

limbes』, 『신경계 *Le Pèse-nerfs*』에서 표현했던 자아의 배우로 회귀했다.

아르토의 편지 수신자들은 동료들, 가족들, 의사들, 여자들, 편집자들, 혹은 카페에서 단순히 만났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편지는 그가 선택한 가장 자유로운 생각의 표현수단이었다. 그것은 나를 타자에게 향하는 출구이다. 이 현상은 동시대 다른 작가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다. 프루스트, 지드, 카프카 등. 그러나 이들과 아르토가 다른 점은 후자의 경우 대부분 글쓰기의 습작이거나 에세이라는 점이다. 그것들은 여러 번 수정, 가필되거나 반복되거나 되돌아오거나 보내지지 않은 것들도 있다. 아르토의 편지들은 그의 모든 텍스트들을 구성하고 있다. 아르토는 글의 결과에 대해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었다. 그는 장 폴랑에게 고백한다. “나는 본래 내가 쓴 것의 가치에 대해 근심하고 확신하지 않는다.”³⁹⁾ 그러나 그는 글쓰기를 통해 안정을 찾았고 사유를 발전시켜 나갔다. 거기에서 타자와의 차이, 내적 고통을 겪는 자신의 존재성 등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의 글쓰기는 죽어야 끝나는 힘든 과업이었다.

수전 손택은 “아르토는 지독하게 멀리 있는, 도무지 흡수할 수 없는 목소리이고 존재”라고 말하며, “무절제하고 무엇에 강박되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고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작가”⁴⁰⁾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르토의 모든 글이 그런 것은 아니다. 『연극과 그 이중 *Le Théâtre et son double*』에서 논리 정연한 연극적 이념의 전개, 뛰어난 시적 산문으로 읽히는 『반 고흐, 사회의 자살자 *Van Gogh, Le Suicidé de la société*』, 특히 대중을 상대로 한 강연 원고들은 매우 명석하다. 그는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엄격하게 자신의 주장을 전개했던 것이다. 그에게 어떤 정신적 결함이 있어도 그의 말과 글은 아르토 그 자신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광기가 아니라 경탄할만한 인내와 견고함, 공허한 언어에서 묻어나오는 천재적 영감이다. 그는 다른 인간이 되기를 원했고 다른 세상을 꿈꿨다.

정신의학적 차원에서 아르토는 정상인의 균형 감각을 손상당한 듯하다. 그러나 그의 병적 징후, 비정상적 행위 등은 정상적인 것의 확장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그의 이미지는 우리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39) A. Artaud, *Oeuvres Complètes V*, Gallimard, 1994, p.60.

40) 수전 손택, 「아르토에 다가가기」, 『우울한 열정』, 서울, 2006, 238쪽.

우리 내부에 잠재하는 병적인 것, 결핍상태의 경험을 미리 전수받은 것이다. 그는 “영혼의 중심적 붕괴effondrement central de l'âme”⁴¹⁾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정신착란 중에도 어떤 지적 섬광을 발했다. 그것이 그의 직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접근할 수 없는 예리한 성찰로 이끈다. 그의 글은 매번 자가진단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지만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그 흔적들을 간과하거나 망각하고 있는 것, 그 존재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들을 우리가 작품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아르토는 스스로 사유하기의 통제 기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표현한다. 모리스 블랑쇼는 아르토에 관해서 정확히 썼다. “시는 생각의 표현으로서 사유의 불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다.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진실이 있다. 진실은 우회하기 때문이며, 그가 경험할 수 있는 지점 밑에서 진정으로 그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⁴²⁾ 우리는 훔덜린, 말라르메와 아르토가 말한 것을 접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영감은 그것이 결핍되어 있는 순수한 지점이다. 그러나 매우 일반적인 주장의 유혹에 저항해야 할 것이다. 시인들 각자가 같은 것을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일한 것이다. 아르토의 몫은 그에게 고유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강렬함에서 나온다.

VI. 나가기

아르토의 삶은 한 개인의 고유한 드라마다. 예술과 개인적 운명을 하나로 통합한 영혼의 소진과 한 정신의 비극인 것이다. 일종의 리빙 시어터living theater, 잔혹극이라 할 수 있다. 아르토는 잔혹극 속 자아의 배우이다. 아르토와 연기자로서의 아르토, 이 자아의 배우에게서 사유의 일관성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모든 이념은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본래의 뜻에서 멀어진다. 게다가

41) *Op.cit.*, *Correspondance avec Jacques Rivière*, p.25.

42) Maurice Blanchot, *Le Livre à venir*, Paris, Gallimard, 1959, p.57.

아르토의 글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라서 독해가 어렵다. 여러 유형의 산문을 시학의 대상으로 삼고 연구한 토도로프는 아르토의 글쓰기 방식을 “카오스의 시학”이라고 불렀다. 그는 아르토가 삶과 작품의 구분을 불가능하게 한 시인이고, “가장 아름다운 예술은 우리를 카오스에 가장 가까이 데려다 주는 예술”⁴³⁾이라고 했다. 토도로프의 지적처럼 우리는 아르토의 즉흥적 언술에서 오히려 풍부한 표현성과 강한 이미지즘에 사로잡힌다. 그것이 아르토의 마력 같은 힘이다.

아르토의 삶이 우주적일 때 그의 형이상학은 존재적 의의에서 나온다. 그는 악이 존재에 내재한다고 보았다. 그것이 우주적 잔혹성이다. 그의 예술은 우주적 삶으로의 참여를 기초로 하고, 잔혹성은 그 생명력의 표출 방식에 다름 아니다. 아르토의 원초적 질문은 문화적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그는 서구문화가 이성과 정신을 혼동하여 삶의 도덕적·미학적·사회적 가치를 상실했다고 보았다. 문화와 삶을 동일시하는 근본적 시각이 필요하다. 그것은 원시주의적 이상에 다가가는 것이다. 아르토는 문화를 위한 혁명의 예언자가 되었다. 그는 삶 자체를 잔혹극으로 간주했다. 『연극과 그 이중』의 서문에서 문화를 집중적으로 언급한 것도 그런 이유다. 결국 아르토는 문학 혹은 연극에 있어서 절대적 깊이에 도달한 유일한 인간이 되었다. 그는 삶에 필요한 육체와 그 육체의 놀라운 언어를 발견했다. 자크 데리다는 아르토가 정신과 육체, 사고와 언어, 인간과 작품이라는 이원론의 도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도둑맞은 육체, 언어, 작품을 되찾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역시 글쓰기에 의존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원론의 도식을 답습한 것이 되었다. 앙리 구이에르는 아르토에게서 불안한 영혼의 급격한 동요를 보았다고 말했다. 아르토의 행동이나 주장에는 변화와 모순이 공존한다. 그는 문학을 저주하면서 문학적 작품들을 출판하려고 했고, 재현의 체계 밖에서 잔혹극을 재현의 방식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그의 글쓰기와 연극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는 마술, 신 등의 의미를 정반대로 해석하면서 말년에 회심하고, 또 그 사실을 부인하는 등 정신적으로 방황했다. 그의 주장대로 잔혹극은 재현représentation이 아니라 실현réalisation이다. 그것은 무대 밖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삶, 그

43) 츠베탕 토도로프, 『산문의 시학』, 류제호 역, 예림기획, 2003, 370쪽.

자체가 잔혹한 드라마 즉 공간의 시이기 때문이다.

정신착란을 겪은 시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시인들보다 더욱 시적이다. 그들의 시에 대해 광기의 글쓰기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아르토의 절규는 비분절의 고향이지만, 다른 병자의 그것과 성격이 다르다. 그는 「고함Cri」이란 제목의 시에서 자신을 “천상의 작은 시인petit poète céleste”이라고 불렀다. 그에 의하면 시는 아직도 완성을 향한 도정에 있다. 그가 말하는 시는 구체적인 언어로 씌어진 공간의 시를 의미한다. 끝으로 아르토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매듭짓고자 한다. “글쓰기는 정신이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방해한다. 글이라는 것은 정신을 어떤 하나의 형태 속에 고정시키고 응결시키기 때문이다. 그 형태에서 이상승배가 태어난다. 문화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연극은 아직 씌어지지 않았다.”⁴⁴⁾

❖ 참고 문헌

- 모리스 브랑쇼, 『미래의 책』, 최윤정 역, 세계사, 1993.
 박형섭 · 신현숙 외, 『아르토와 잔혹연극론』, 월인, 2003.
 수전 손택, 『우울한 열정』, 홍한별 역, 도서출판 시울, 2005.
 앙토냉 아르토, 『잔혹연극론』, 박형섭 역, 현대미학사, 1994.
 자크 데리다, 『글쓰기와 차이』, 남수인 역, 동문선, 2001.
 츠베탕 토도로프, 『산문의 시학』, 류제호 역, 예림기획, 2003.
 Artaud, Antonin, *Oeuvres complètes I*, X, XI, XII, XIII, XIV*, Paris, Gallimard, 1994.
 _____, *L'Ombilic des Limbes suivi de Le Pèse-Nerfs*, Paris, Poésie/Gallimard, 1992.
 _____, *Le Théâtre et son Double*, Paris, Gallimard, 1972.
 _____, *Les Tarahumaras*, Paris, Gallimard, «folio/essai», 2007.

44) A. Antonin, *Oeuvres complètes VIII*, Gallimard, 1994, p.203.

- _____, *Nouveaux écrits de Rodez*, Paris, Gallimard, «L'imaginaire», 1977.
- Blanchot, Maurice, *Le Livre à venir*, Paris, Gallimard, «idées», 1959.
- Bruno, Pierre, *Antonin Artaud, Réalité et Poésie*, Paris, L'Harmattan, 1999.
- De Mèredieu, Florence, *C'était Antonin Artaud*, Paris, Fayard, 2006.
- De Portzamparc, Renaud, *La folie d'Artaud*, Paris, L'Harmattan, 2011.
- Derrida, Jacques, *L'Écriture et la Différence*, Paris, Seuil, 1970.
- Dumoulié, Camille, *Antonin Artaud*, Paris, Seuil, 1996.
- _____, *Artaud, La vie*, Paris, Desjonquères, 2003.
- Floc'h, Katell, *Antonin Artaud et la Conquête du corps*, Association Découvrir, Larousse/Sélection Reader's Digest, 1995.
- Mauriac, Claude, *L'alittérature contemporaine*, Paris, Albin Michel, 1969.
- Rey, Jean-Michel, *La Naissance de la poésie, Antonin Artaud*, Paris, Métailié, 1991.
- Roumieux, André, *Je travaille à l'asile d'aliénés*, Paris, éd. Champ Libre 1974.
- Thévenin, Paule, *Antonin Artaud, ce Désespéré qui vous parle*, Paris, Seuil, 1993.
- Virmaux, Alain, *Antonin Artaud et le Théâtre*, Paris, Seghers, 1970.
- _____, *Antonin Artaud. Qui êtes-vous?* Paris, La Manufacture, 1986.

❖ ABSTRACT

A. Artaud or the Prisoner of Language

Park, Hyung-Sub

The life of Antonin Artaud exactly reproduces a very cruel drama. He lived in constant anguish and suffered from severe mental pain. This research will trace his thoughts in his writings while he was a prisoner of language. Artaud was a poet filled with anxiety about language, things, being, and thought. Whenever he tried to explain the mystery of being by means of mundane language, he experienced psychological agony. His poetic thoughts began to break down, because of his identity loss. Nevertheless, he was destined to grasp the world through language.

Artaud had suffered from mental illness during his youth. His mental illness was associated with his difficulty in creating poetry. In this research, the letter, *Correspondance avec Jacques Rivière*, is analyzed. The poet refers to “the collapse of the spirit’s core, and the erosion of the fundamental thought that slips away” to convey his linguistic incompetence. Hereafter, he constantly demonstrated anxious mental symptoms. Even though he became mentally deranged, he maintained his consciousness, as is apparent in his writings. Also, his spiritual belief is reflected in his mental uneasiness. While he was traveling through the Tarahumaras area in Mexico, he was obsessed with its primitive belief in the Peyote rituals, and he immersed himself in performing them. His unchristian belief was the product of his mystical personality. Until his last breath, he did not give up writing.

Artaud’s mental derangement does not mean lunacy, but if one insists in calling it so, that is a metaphor. His derangement comes from his refusal to accept his limitations and from his aspiring to regard his body in the same light as his intellectual perceptions. His intellect could manifest more easily when his mind was elevated to the extreme. Artaud’s lunacy is no different from that of a profound philosopher. The lives of poets who suffer from mental derangement are more poetic than the lives of those who do not. Artaud’s atypical emotions provide a way of to measure our own limitations, helplessness, and resignation. His scream is nonsegmental but different from that of a mental patient. That

difference is why people are interested in his works and wish to delve into his writings.

Key Words

language, Antonin Artaud, mental illness, writing, existence, poetics

논문접수일: 2016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01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05일